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253>

JCCT 2022-1-28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과

The Effects of Human Relations and Communication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최희정*

HeeJung Choi*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상자는 G 시에 소재한 U 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 82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9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였고, SPSS /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Shapiro - Wilk, Paired t-test를 하였다. 대상자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 전·후의 의사소통능력($t=-2.87, p=.005$),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t=-3.8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대인 간 의사소통($t=-0.09, p=.931$)과 대인관계($t=-0.83, p=.409$)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의사소통능력과 기술은 간호대학생뿐만 아니라 실무 간호사에게도 중요한 간호영역이므로 지속적인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연계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의사소통, 대인관계, 간호교육,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human relations and communication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82, 1 grad of students of U university in G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3 to December 6, 2019,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Shapiro-Wilk, Paired t-te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ject's communication skill($t=-2.87, p=.005$), communicative competence self-appraisal($t=-3.80, p<.001$) before and after human relations and communication education,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terpersonal communication($t=-0.09, p=.931$) and human relationship($t=-0.83, p=.409$). Communication skills and skills are important nursing areas for nursing students as well as practical nurses, so continuous communication education is requi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ep-by-step program for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apply continuous and repetitive education in connection from the lower grades to the upper grades, and follow-up research to verify the effect.

Key words : Communication, Human relationship, Nursing education, Student

*정희원,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29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29,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hjchoi@uu.ac.kr

Dept. of Nursing, Uiduk University, Korea

I. 서론

1. 연구필요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실무현장에서 간호 대상자에게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고, 다양한 전문의료인들과는 협력과 조정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능력은 단기간 집중훈련으로 함양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므로 전문 간호인으로 임상현장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때부터 준비되어야 한다[1]. 이에 따라 간호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의사소통관련 교과목을 저학년에서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는데[2], 이론 중심의 의사소통 교육은 제한적이므로 다양한 학습과 경험,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학습방법 적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3,4]. 따라서 학부과정부터 체계적이고 실제적이며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한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3,5].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이해를 통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6]. 그리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주체의 객관적 능력뿐 아니라 자신감, 의지, 집중력 등 주관적 요인들에 의해 상당히 좌우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7]. 그러므로 의사소통역량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7] 반영 되어야 한다. 더불어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 결과는 의사소통 교육 후의 교육성과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7] 의사소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이 의도한 의사소통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기능력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8,9,10]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형성하고 주고받는다. 즉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 상호 간의 태도, 생각, 느낌 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11],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달한 후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스스로 적절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내적 의사소통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대인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전달 해석에 따른 상호반응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 형성에 영향력을 미친다[12]. 대인 간 의사소통은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타인을 비롯한 자신의 존재 위치를 확보하는데 기본적인 수단이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요한 변인이다[13].

대학생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집단에서 관계를 형성하는데, 특히 대인관계 영역에서 관계의 폭과 질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이다[14]. 간호대학생의 경우 예비 간호사로서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효율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5]. 그런데 실제로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과정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6], 그 원인은 의사소통 기술과 자신감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아졌고[18], 의사소통 집단 프로그램 후 대인 간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 10, 19]. 그러나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간호대학생이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전문직 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역량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 전·후 의사소통 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 전·후 의사소통 역량 자가진단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 전·후 대인 간 의사소통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 전·후 대인관계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간호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 대인 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설계의 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 시에 소재한 U 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이었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에 따라 유의수준은 .05,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는 .30, 검정력 $1-\beta$ 는 .80으로 설정하여 t-test를 위한 대상자 수를 확인한 결과 최소 표본 수 82명이었다.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수강한 학생은 85명이었고, 불성실한 응답자 3명을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자는 82명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의사소통능력 15문항,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 25문항, 대인 간 의사소통 40문항, 대인관계 25문항, 일반적 특성 5문항으로 총 1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0]. 이 도구는 Rubin [20]이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개념에 Hur [21]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 보완한 GICC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15점에서 최고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ur [2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사전 .86/사후 .82이었다.

2)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

의사소통역량은 언어를 매개로 타인을 비롯한 주위 환경에 적응하고 통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타인과 협력함으로써 상호작용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7].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은 의사소통역량의 인지적 요소와 비인지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여 의사소통 주체만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측정하도록 개발한 Kim과

Han, Won [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사전 .93/사후 .91이었다.

3) 대인 간 의사소통

대인 간 의사소통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과정으로 서로의 감정, 생각,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기호나 상징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의 행동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11]. 이 도구는 Bienvenu [22]가 개발한 대인 간 의사소통 검사(Th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를 Son [23]이 번역한 것이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으로,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이며 20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간 의사소통 정도가 원활한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67이었고[2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사전 .70/사후 .69이었다.

4)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화합을 통해 상호간에 더욱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의미한다[25]. 이 도구는 Schlein [25]이 개발한 Relationship Scale을 Ju [26]가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을 의미한다. Ju [26]의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사전 .85/사후 .94이었다.

4. 연구진행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1학년 2학기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2학점)' 교과목을 주 1회, 회기당 100분, 총 13회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사전조사는 1회기에, 사후조사는 13회기에 실시하였다. 총 13회기의 수업은 1분반 40명, 2분반 45명으로 나누어 1~5회기는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이론적인 강의와 개별 활동을 하였다.

표 1.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의 내용

Table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Course Contents

Session	Contents	Strategies
1	·Orientation of Course ·Team building(team name,rule, etc...) ·Pretest ·MBTI Inventory	·Small group activity ·Individual activity
2	·Self concept and self introduction ·Personality structure and defense mechanism	·Small group activity ·Individual activity ·Lecture
3	·Freud's theory of psychosexual development ·Erikson's theory of social psychological development	·Lecture
4	·Sullivan's interpersonal theory ·Piaget's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Mahler's theory of segregation and individuation	·Lecture
5	·Self understanding and self-acceptance ·Find self strengths and weakness ·Johari's window	·Individual activity ·Self understanding report
6	·Understand other people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empathy, empathy practice)	·Small group activity ·Role play
7	·Verbal/non verbal communication ·Nonviolent communication(feeling, need, request)	·Small group activity ·Role play
8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 expressing for observing and feeling ·Practicing 'I-Massage'	·Small group activity ·Role play
9	·Therapeutic/non therapeutic communication ·Role play in clinical practice situation of children and youth	·Small group activity ·Role play
10	·Therapeutic/non therapeutic communication ·Role play in clinical practice situation of elderly and multicultural family	·Small group activity ·Role play
11	·Therapeutic/non therapeutic communication ·Role play in clinical practice situation of conflict situation, refusal and request	·Small group activity ·Role play
12	·Team role play presentation(4 teams) and sharing impressions	·Role play ·Feedback
13	·Team role play presentation(3 teams) and sharing impressions ·Posttest	·Role play ·Feedback

6~11회기는 관계형성 증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상황별 치료적·비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한 팀별 토론, 역할극이 이루어졌다. 12~13회기는 팀별 역할극 하나를 선택하여 역할극 또는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으로 발표하였고 서로 느낌을 표현하고 피드백 하였다. 팀별 토론은 한 그룹에 6~7명 학생들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자는 매회기마다 개별 활동 및 팀별 활동을 격려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각 회기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표 1>.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수업 전·후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 대인 간 의사소통, 대인관계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9월 3일에서 12월 13일까지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가 설문지 배포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 연구방법, 설문지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 후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취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연구에 불참하더라도 성적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과 연구 참여중단 혹은 철회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자가보고 방식으로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시간은 15분 내외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73.2%, 연령은 20세가 79.3%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1.2%,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73.2%, 학업성적은 보통이다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2 (26.8)
	Female	60 (73.2)
Age	20	65 (79.3)
	>20	17 (20.7)
Satisfaction of campus life	Unsatisfied	6 (7.3)
	Average	42 (51.2)
	Satisfied	34 (41.5)
Satisfaction of major	Unsatisfied	1 (1.2)
	Average	21 (25.6)
	Satisfied	60 (73.2)
Academic achievement	High	11 (13.4)
	Middle	56 (68.3)
	Low	15 (18.3)

2.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수업 전·후의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 대인 간 의사소통, 대인 관계의 차이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수업 전·후의 의사소통능력($t=-2.87, p=.005$)과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t=-3.8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인 간 의사소통($t=-0.09, p=.931$)과 대인관계($t=-0.83, p=.409$)는 수업 전·후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표 3>.

표 3.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수업 전·후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 대인 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의 차이
 Table 3.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after Human Relations and Communication Education (N=82)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Communication Skill	55.62±6.82	58.28±5.78	-2.87	.005
Communicative Competence Self-appraisal	91.16±11.28	96.57±9.20	-3.80	<.00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57.66±8.87	57.77±8.79	-0.09	.931
Human Relationship	93.46±11.85	94.85±10.86	-0.83	.409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 대인 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수업 후 의사소통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단일군 설계로 연구한 결과[15]와 대조군 전·후 설계로 연구한 결과[10]와도 같았다. 또한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는데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사소통 훈련이 되면 효과가 더 높다고 하였다[1,27]. 본 연구에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개별 활동과 다양한 상황별 역할극을 시도한 것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 지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7].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 결과는 자신이 이수한 의사소통 교육이 의사소통역량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의사소통 교육과정의 수준과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라고 하였다[7]. 본 연구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이론수업, 개별활동, 그룹활동, 역할극과 피드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였던 것이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사소통 교육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론수업과 함께 실제적인 의사소통 연습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은 후속연구에서 활용하여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인 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는 수업 후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Park과 Lee [4]의 연구결과는 집단프로그램 적용 후 대인 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Jeong과 Seo [10]의 연구결과도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후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6~11 회기까지 그룹활동을 통해 다양한 상황별 치료적·비치료적 의사소통 역할극을 하였다. 의사소통 기술을 실제 상황에 표현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상황중심 역할극을 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그룹활동 속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팀원과 토의하고 상호작용 하도록 하였으나 효과적이지 않았다. 반면 Kim, Park과 Lee [4]의 연구는 집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이 발표하고 피드백하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자신의 감정을 언어적·비언어적 기술로 표현하기, 토론 등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분석하여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집중훈련을 6회기 동안 하였던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Jeong과 Seo [10]의 연구는 100분의 이론 수업과 50분의 프로그램을 14회기로 구성하였고, 개별 활동, 소집단 활동, 영화시청, 도형그리기, 역할극, 마인드맵 발표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는 본 연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던 것이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의사소통능력과 기술은 간호대학생뿐만 아니라 실무 간호사에게도 중요한 간호영역이고, 단기간의 집중 훈련으로 함양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교육이 교육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으로 편성되어 실제 훈련하면서 다양한 교수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시점까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인 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는 의사소통 훈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효과 검증이 이어져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 대인 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수업 전·후의 의사소통능력($t=-2.87, p=.005$)과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t=-3.8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대인 간 의사소통($t=-0.09, p=.931$)과 대인관계($t=-0.83, p=.409$)는

수업 전·후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이 일개 대학으로 한정되어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전후설계로 진행되었으므로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과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을 통해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의사소통 교육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사료된다. 교수자는 간호대학생들이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비교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 연구설계를 적용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둔 연구설계를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역량 자가진단과 대인관계 등 다양한 변수들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연계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Park, S.B. Im, H.S. Kim, "The effect of reinforced self-understanding in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3, pp.361-368, 2009.
- [2] S. Kim, J.H. Park, H.H. Lee,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4, No. 3, pp. 412-420, 2004. <http://dx.doi.org/10.4040/jkan.2004.34.3.412>
- [3] Y. Choi, E. Song, E. Oh, "Effects of teaching communication skills using a video clip on a smart phone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 29, No. 2, pp. 90-95, 2015.
- [4] J.H. Lee, S.H. Lee, J.W. Kim, "Design principles

- of online environments for Chinese language learning”,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 7, No. 2, pp. 315–333, 2004.
- [5] M.S. Yoo, J.H. Park, S.R. Lee, “The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using video 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learning motiva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0, No. 6, pp. 863–871, 2010. <http://dx.doi.org/10.4040/jkan.2010.40.6.863>
- [6] J.H. Park, “Communication Theor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s”, Social Commentary, 2016.
- [7] J.G. Kim, S.W. Han, M.H. Hon, “Invention of the self-appraisal model for assessing communicative competence”, *Rhetoric Society of Korea*, Vol. 23, pp. 389–422, 2015.
- [8] H.W. Ayres,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2005.
- [9] M.S. Choi, “Convergence Study about Awareness towar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fficacy : Centered on the ‘S’ University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7, No. 6, pp. 79–87, 2017. <http://dx.doi.org/10.22156/CS4SMV.2017.7.6.079>
- [10] C.Y. Jeong, Y.S. Seo, “Effect of the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Communication self efficacy,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5, pp. 271–280, 2017. <http://dx.doi.org/10.14400/JDC.2017.15.5.271>
- [11] M. Cathleen, J. Bernard, “Family Relations and Communication”, HaWoo, Seoul, 1995.
- [12] S.H. Park, “The effects of Nonviolent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13.
- [13] S.H. Park,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Discrepanc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016.
- [14] H.W. Lee, “Development of Korea-Collegiate core Competencies Assessment(K-CCCA)”,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1, No. 1, pp. 97–127, 2017.
- [15] M.R. Lee, Y.K. Kwag, “The Effects of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4, pp. 181–190, 2016.
- [16] H.S. Kim, W.J. Park, T.H. Ha, “The effects of education of communication on perceptual orientation, self-efficacy,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 10, pp. 95–111, 2006.
- [17] S.Y.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15–122, 2016.
- [18] J.W. Park, M.S. Choi,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 351–360, 2009.
- [19] S.A. Kim, J.H. Park, H.H. Lee,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4, No. 3, pp. 412–420, 2004.
- [20] R.B. Rubin, “Communication competence. In G.M. Phillips & J.T. Wood (Eds.),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pp. 94–129, 1990.
- [21] G.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 6, pp. 380–408, 2003.
- [22] M.J. Bienvenu, “A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 *Th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21, No. 4, pp. 381–388, 1971.
- [23] B.U. Son, “Effect of Cognitive TA and Cognitive-Experiential TA Program on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of Corporate Employe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1994.
- [24] J.H. Kim, “The Effec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raining on Hospital Coordinator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2005.

- [25] S. Shie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 [26] J.S. Ju,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5.
- [27] S.J. Kim, B.Y. Kim, "Effects of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Based on Situated Learning Theor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8, No. 6, pp. 708-719, 2018.